

# 총장들 “대학 정상화 위해 규제 풀고 재정 확대하라”

대교협, 132개 대학 총장 세미나  
대학 “재정적 한계… 등록금 자율화”  
교육부 “법률상 인상범위 외 불가”

학령인구 급감으로 위기에 놓인 대학들이 교육부에 대학 규제 개선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내달 3주기 대학진단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학 총장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학 간 경쟁보다는 협력과 공유를 통해 고등교육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 당국은 등록금 자율화 요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한편, 등록금 동결 여부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한 평가 방식 변경과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1~2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전국 199개 회원대학 중 13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코로나·초저출산 시대 대학의 도전과 응전’을 주제로 의견을 모았다.

◆“등록금 동결 정책 등 규제 거둬야”…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지난 1일 오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교육부는 난색

총장들은 13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재정적 한계상황에 부딪혔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교육부는 재차 불가 입장을 보였다. 등록금 자율화는 법률상 인상 범위 외에는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종철 차관은 “허용된 범위 내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대타협 전에는 어려운 숙제”라고 일축했다.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2유형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이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

금 지급 노력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한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실장은 “고등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장학금을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 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동서대 총장)은 “교자·교사·교원·수입·용재산 등 4대 요건을 완화해 대학이 유희시설을 통한 수익사업으로 교육에 재투자할 방법이 현재 막혀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선을 그었다. 최은옥 실장은 “4대 요건은 대학 설

립의 기본 여건에 관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3주기 진단평가’ 발표 앞두고…“수혜 대학 늘리고 용도 제한 없애 달라”

대학 총장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는 3주기 평가였다. 내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총장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참여대학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 제한을 폐지해 완전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8월 발표하는 3주기 대학진단평가에서 문제가 없는 한 참여대학 모두에 혁신지원사업비를 교부하고 용도제한을 폐지해 일반지원사업비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면수업 확대와 교육 역량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 대부분 대학이 진단평가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근소한 점수 차이로 희비가 갈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총장은 “대학가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이 훌륭한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가 들리는 만큼, 대부분이 0.1점, 0.2점 차이로 선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경우, 낙인효과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생존 불가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병욱 한밭대 총장도 “국립대 상당

수가 중소도시에 있고 올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재정 위기로 대학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면 이는 곧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으니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육부 “기재부에 대학혁신지원비 확대 설득 노력”

교육부 관계자는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 재원을 교육부 계획대로 확보할 경우 지원 범위가 전국 대학 중 7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교협은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2조 원 수준으로 확대 지원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정종철 차관은 “2018년 재정지원 비율이 70%였지만, 올해 기재부를 충분히 설득해 예산을 확보하면 이 비율도 더욱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일부 대학가에서는 수도권외 우수 명문대학 대신 지역 중소규모 대학 위주로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차관은 “차라리 재정 형편이 되는 수도권 대학은 국가 재정 지원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그러려면 등록금 자율화라는 수단이 받쳐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동부권 5개 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사례 공유  
미래 고등교육 발전방향 발표

한양대학교가 2일 서울캠퍼스에서 ‘제 1회 동부권 혁신공유교류협정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과포럼은 디지털 혁신 교육콘텐츠 및 기술공유협력을 목표로 지난 2월 협정을 체결한 한양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등 서울 동부권 5개 대학의 원활한 발전교류와 각 대학의 우수한 성과 확산을 위해 진행됐다. 각 대학은 지향하고 있는 교육혁신 방향을 공유하고자 5개 대학의 순환 방식으로 성과포럼을 기획했다.

성과포럼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례공유 및 미래 고등교육 발전방향’



2일 서울 성동구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서울 동부권 5개 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에서 김우승 한양대 총장(오른쪽 첫 번째)이 텔레프레즌스를 활용해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한양대

을 주제로 5개 대학 총장들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환영사에 이어 성과발표의 첫 주자를 맡은 한양대는 ‘웨어링 에듀케이션 HY-LIVE 플랫폼’을 소개했다. HY-LIVE는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강연자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교육 플랫폼이다. 한양대가 세계 최초로 대학교육에 텔레프레

즌스 기술을 활용해 개발했다. 한양대의 발표에 이어 ▲AR·VR 콘텐츠 개발을 통한 교육혁신(경희대) ▲문과대학 온라인 교육 플랫폼 문광(고려대) ▲학생성공 지원을 위한 도전학기 운영(성균관대) ▲학생주도형 융합교육의 지향과 접근(한국외대)의 성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 승실대, 유학생 소통 프로그램 성료

한국생활 적응 돕는 ‘승실프렌즈’

승실대학교는 유학생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비교과프로그램 ‘승실프렌즈’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승실프렌즈’는 한국 학생의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3월 15일부터 13주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몽골, 베트남,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7개 국가 학생 40명(10팀, 내·외국인 2:2)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학습지원(수강신청, 전공 안내 등) ▲한국생활(외국인 등록증, 비자, 은행 이용 등 안내) ▲친교활동 ▲학교생활 ▲한국문화 등 6가지 주제로 활동했으며, 승실대는 우수 활동 6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33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양인집 어니컴(주) 회장 취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5일 10시 30분 한국외대 스마트도서관 5층 힐라아쿠시네트홀에서 양인집 어니컴(주) 회장이 33대 한국외대 총동문회장으로 취임한다고 4일 밝혔다.

양인집 회장은 한국외대 일본어과 76학번으로 쌍용화재해상보험사장, 진로재팬 사장, 하이트진로 해외사업 총괄사장을 역임했다.

/이현진 기자

## ‘문이과 통합 첫 수능’ 11월 18일 시행

올해도 마스크 착용한 채 시험

문과와 이과 통합 취지로 개편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8일 시행된다. 수능을 치르는 재학생과 n수생 등 수험생들은 시험에 앞서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처럼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대입 수험생들은 3분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이다. 하지만,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수험생 유형이 구분돼 시험실이 운영된다. 방역 관리를 위해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제한한다.

평가원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별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영어와 한국사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기존처럼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 출제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번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9일~9월 3일까지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10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는 등급만 표기된다. 수험생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외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나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